

<EBS 중심> 현장에서 풀고 해설하는  
<6회> 적중 모의고사

[듣기]

◎ 이번에는 ‘청소년 기부문화’에 대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오랫동안 남모르게 큰돈을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는데요. 기부가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기부 문화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 기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박 교수(남) : 많은 청소년들이 기부를 거창하고 대단한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품, 전문지식, 재능, 기술, 시간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행위가 기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어도 되고, 액수가 큰돈이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잊 붙이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니깐요.

사회자(여) : 네, 박 교수님. 그럼 청소년들이 기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교수(남) :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기부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구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 100원짜리 동전 등도 기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여) :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인 ‘나눔터’를 운영하고 계신 김 대표께서 ‘나눔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김 대표(여) : 인터넷에서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메일 등을 이용하다 보면 누적되는 사이버 머니들이 있지요. 저희는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자(여) : 사이버 머니는 인터넷에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용도가 마땅치 않은데, 그렇게 하면 사이버 머니를 좋은 곳에 쓸 수 있겠군요. 박 교수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박 교수(남) : 홍보가 덜 된 탓에 아직까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미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여) : 김 대표님! 저도 누적된 사이버 머니가 꽤 되는데요. 어떻게 기부를 하면 되나요?

김 대표(여) : 저희 ‘나눔터’ 홈페이지에 기부 단체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후원할 곳을 정하셔서 사이버 머니 기부하기를 클릭한 후, 기부할 사이버 머니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자(여) : 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기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기부라는 아름다운 동행에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1~2]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물음) 박 교수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이 제시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말하고 있다.
- ②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③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⑤ 여러 가지 통계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2. (물음) 이 대답을 들은 'A 군'과 'B 양'의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
|-----------------------------------------|-------------------------------------------|
| A 군<br>- 컴퓨터를 잘 다룸. 블로그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음. | 기부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러 소유하고 있던 포인트를 제공함. ----- ① |
|                                         | 형편이 어려워 컴퓨터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에게 활용 방법을 가르쳐 줌. ② |
| B 양<br>- 풍선으로 인형 만들기를 잘함.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음. | 점자 도서관에서 점자책을 만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함. -----        |
|                                         | 보육원 아이들에게 풍선으로 인형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줌. ----- ④  |
|                                         | 사회 복지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줌. -----    |

[쓰기]

6. 어떤 대상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학생 회장 선거를 위한 전략'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추출한 의미로부터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착상의 대상                                                                                     | 추출한 의미        | 연상한 내용                                               |
|--------------------------------------------------------------------------------------------|---------------|------------------------------------------------------|
| <br>열쇠    | 잠긴 곳을 열어준다.   |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 ①        |
| <br>건전지   | 에너지를 제공한다.    |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힘을 보태주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다. ----- ②    |
| <br>확성기 | 소리를 확대한다.     |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학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③ |
| <br>부채  | 바람으로 더위를 식힌다. |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다. ④                |
| <br>블록  | 쌓아서 완성해 간다.   | 학생 개개인의 힘을 모아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⑤                |

7. '어린이 아토피 치료제'의 광고 문구를 제작하려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제품의 사용 방법과 효능이 잘 드러날 것
- 비유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드

러낼 것

- ① 천연 오일을 사용했어요.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먹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 ② 밤이 되면 더 힘들었죠?  
자기 전에 아픈 부위에 잘 발라 봐요.  
비단결 같은 새살이 돌아와 줄 거예요.
- ③ 당당하게 웃음을 지어보아요.  
더운 여름 아기의 찡그림은 싫어요!  
보석처럼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켜줄게요.
- ④ 신개념 아토피 개선 치료제가 왔습니다.  
매일 저녁 가려운 곳에 발라주십시오.  
피부를 곱게 해줍니다.
- ⑤ 고통에 힘겨웠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깨끗이 씻고 아픈 곳에 발라 볼까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될 거예요.

8. <보기>는 ‘우리 학교 수학여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하여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I. 수학여행 활동의 특징 ----- ㉠
1. 수학여행 장소가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녀온 적이 있는 곳임.
2. 관람을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혼란스러움. ----- ㉡
3. 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많아서 복잡하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 ----- ㉢
4. 대부분의 활동이 별다른 즐거움 없이 따분함.
- II. 문제점의 원인

1.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수학여행 장소가 결정됨.
2. 학년 전체가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감으로써 행사 참여 인원이 대규모임.
3. 대부분의 활동이 단순한 관광 위주의 활동으로 치우쳐 있음.

III.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 ㉣

1.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함.
2. 학급별로 수학여행 장소를 다양화하여 행사 참여 인원이 소규모가 될 수 있도록 분산함.
3.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고 따분함. ----- ㉤

IV. 수학여행 문제점의 개선 촉구 ----- ㉥

- ① ㉠은 하위 항목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활동의 문제점’으로 고쳐야겠어.
- ② ㉡과 ㉣은 유사한 상황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야겠어.
- ③ ㉢에는 ‘II-3’을 고려하여,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은 상위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학여행 장소의 선정’으로 수정해야겠어.

9. ‘도시철도의 제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신문 보도 자료

정부는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신규 도시철도 노선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신문 -

(나) 인터뷰 자료

1.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을 타는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자리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죠. 도시철도 노선이 새로 더 만들어진다면 보다 편한 출근길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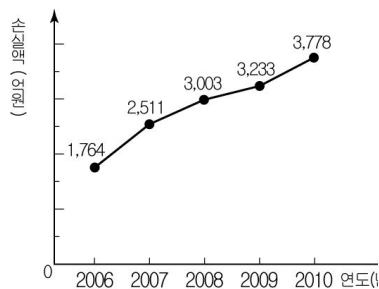
- 30대 직장 여성 -

2. 저희 △△도시철도는 역사(驛舍)를 어린이 체험학습장, 청소년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난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역을 테마파크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했던 외국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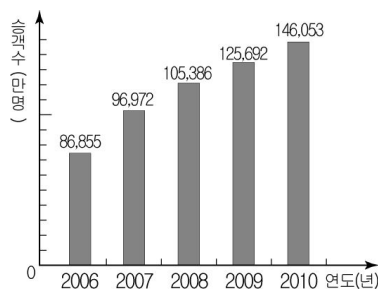
- △△도시철도공사 직원 -

(다) 통계 자료

1. 연도별 ○○도시철도 손실액



2. 연도별 ○○도시철도 승객수



① (가)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난을 극복하

기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② (나)-2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난 극복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것이 수익 창출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③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규 노선 증설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④ (나)-1과 (다)-1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이용객의 불편 건수가 늘어남에 있음을 제시한다.

⑤ (가)와 (다)-1, (다)-2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증가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0. 다음은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 콘텐츠는 제작자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의 결정체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 제작자의 창작 의지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제작자와 이용자의 불신을 ㉡ 조장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의 발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다운로드로 당당하게 문화 콘텐츠를 즐기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 그러므로 영화를 비롯한 문학, 사진,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무리 정부 당국자가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여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네티즌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한다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악화

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㉔ ]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㉔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① 글의 흐름을 살피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② ㉔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제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로 고쳐야겠어.
- ③ ㉔은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성하는’으로 바꾸어야겠어.
- ④ ㉔은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㉔은 문맥을 감안하여 ㉔로 옮겨야겠어.

1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 관형사형 어미 >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 보기 2 >

-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춘향전이다.
-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니?
-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ㄷ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12. <보기>의 ‘결다’를 피동으로 바꾼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결다[동사]

- 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②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③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④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 ⑤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① ‘결다①’ : 그는 문단에 이름이 결린 작가다.
- ② ‘결다②’ : 그는 결려 있지 않은 문을 활짝 열었다.
- ③ ‘결다③’ : 나의 그림이 드디어 미술실 벽에 결렸다.
- ④ ‘결다④’ : 그는 최면에 결린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 ⑤ ‘결다⑤’ : 자동차의 시동이 결리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

[시]

강주 시(詩)

(가)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꽃기는 사슴이 /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꿀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 넓은 언  
덕에  
밤 이슬처럼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 며칠씩 산속  
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 오늘도 물이꾼  
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쫓는 ㉠새와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복소  
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  
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나)

[A]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뒤흔다요  
뒤흔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뒤흔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산그늘도 다 도  
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 하얀 억새꽃 하얀 손  
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냐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냐요

뭘 소용이냐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뒤흔다  
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물면 /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디

병신같이, 바보 천지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뒤흔다요, 뭘 소용이냐요.

- 김용택, '들국'

(다)

[B]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선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짱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쭉니풀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 언덕

꽃상여

때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 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서정주, '풀리는 한강가에서'

이성권 출제

### 1. 위 작품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을 대응되어 화자의 삶을 절실하게 드러냈다.
- ②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하여 삶의 무상감을 일깨우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삶의 문제점을 호소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대립적 시어를 통하여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장환의 '성탄제'가 발표된 1939년은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던 암담한 시기였는데, 이때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은거지가 되며 민족정신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제'를 제목으로 내세워 파시즘적 위력에 대비되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시로 표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일로서, 시대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골짜기'와 '비탈'은 구렁지고 경사진 곳이라

는 점에서 군국주의의 폭력에 박해 당하는 시련의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포수'와 '물이꾼'은 연약한 생명을 유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파시즘적 위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표범과 늑대'는 사슴을 위협하는 존재로 억압적인 시대의 폭력성을 상징하고 있군.
- ④ '어린 사슴'이 죽어가는 어미를 지켜보며 '샘'을 떠올리는 것은 암담하고 고통스런 상황에서 맑은 생명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따듯한 핏방울'가 성탄제에 갖는 의미는 희생을 통한 생명의 의미로 폭력에 맞서는 힘으로 작용한다.

### 3.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와 [B] 모두 자연물로 인해 화자의 정서가 유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A]는 표면적으로는 원망을 표출하나, 내면적인 그리움을 더욱 강도 있게 드러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③ [B]는 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적 추이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 ④ [A]는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형식을 드러내며, [B]는 화자의 내면에서 제기되는 물음을 보여준다.
- ⑤ [A]와 [B] 모두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 다음 [보기] 시의 구도를 [A]와 [B]로 정리할 때, ㉠와 ㉡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터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

A [울상이 된 그림자]



B [그림자 웃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비문학 : '언어' 통사구조

국어에는 조사 '이/가'가 한 문장에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에 대해 두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가 서술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설명해 왔다. 그렇지만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경우 '서술절'의 설정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첫째,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라는 문장에서 '앞다리가 짧다'를 서술절로 인정한다면, '앞다리는 토끼가 짧다.'에서는 '토끼가 짧다'를 서술절로 인정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대구가 여름이 온도가 높다.'와 같이 '이/가'가 세 번 나타나는 경우에도 '높다'라는 하나의 서술어가 계속해서 절을 형성한다고 설명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영수가 형이 기업을 경영한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영수가'를 주어로 보고 '형이 기업을 경영한다'를 서술절로 보아야 하는데, '형이 기업을 경영한다'를 '영수가'의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이중 주어 구문을 서술절로 설명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중 주어 구문은 '코끼리가 코가 길다.'와 같은 대소 관계 유형, '맥주가 두 병이 부족하다.'와 같은 수량어 유형, '외투가 때가 묻었다.'와 같은 부사어 대치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에 속하는 이중 주어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대소 관계 유형은 '이/가'가 나타나는 두 개의 명사구 사이에 '전체-부분' 혹은 '소유자-소유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문장의 경우 '코끼리가'가 '길다'의 주어일 수는 없으며, '길다'의 주어는 '코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기저에서는 '코끼리의 코가 길다.'였던 것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코'가 다른 짐승의 코가 아니라 '코끼리'의 코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를 '이/가'로 바꾼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의 '이/가'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는 것이 옳다.

수량어 유형은 수량어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에 '이/가'가 붙은 경우인데, 이 경우 수량어에 '이/가'가 결합한 부분은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붙은 부가어에 불과하다. 즉, '맥주가 두 병이 부족하다.'라는 문장의 경우 '두 병이'는 주어가 아니고 단지 주어인 '맥주'를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부가어라는 것이다. '두 병이'를 별도의 주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가'가 한 번만 나타나는 '맥주 두 병이'처럼 그 전체가 하나의 주어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 대치 유형은 기저의 부사어가 표면에서 '이/가'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외투가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의 경우, 기저에서는 '때가'가 주어인 '외투에 때가 묻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표면 구조에서 부사어인 '외투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 대신에 '이/가'가 붙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이

다.

요컨대 국어에는 한 문장 속에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는 구문은 없으며, 기저에서 주어가 아니던 명사구가 표면 구조에서는 초점화나 의미의 보충 혹은 강조 등을 위해서 ‘이/가’가 붙은 형태로 나타나 주어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국어 문장에서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는 것은 동작의 주체가 복수이기 때문이다.
- ② 대소 관계 유형의 문장에서는 주격조사와 결합한 모든 성분이 실질적인 주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 ③ 수량어 유형의 문장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설명될 때에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 ④ 부사어 대치 유형으로 볼 때, 두 번째 명사구와 결합한 주격조사는 의미상 보조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 ⑤ 이중 주어 구문의 기저 구조를 분석해보면 주격 조사와 결합한 성분들의 상호이질성이 드러난다.

## 2. 위 글을 참조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표면 구조] ㄱ. 발목이 멍이 생겼다.

ㄴ. 발목 멍이 생겼다.

↑

[기저 구조] 발목에 멍이 생겼다.

- ① ㄱ과 ㄴ은 모두 기저 구조의 문장이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 ② ㄱ의 ‘발목이’는 실제로 주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화 혹은 의미의 강조를 위해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③ 기저 구조의 문장에서 주어는 단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④ 표면 구조에서 보이는 ㄱ과 ㄴ의 차이는 기저 구조의 중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이중주어구문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ㄱ의 ‘멍이 생겼다.’를 서술절로 파악한다.

비문학 : 인문, 사회

진정한 의미의 양심은, 외부의 권위가 내면화된 권위적 양심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아’가 이러한 권위적 양심에 해당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대체로 양심을 이런 형태로 경험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권위적 양심은 모두 부모나 학교, 국가, 사회, 교회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규범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적 혹은 초자아적인 양심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에게 집요하게 캐묻고 야단치고 벌주는 외적 권위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배우자, 상관, 기업, 종교 단체, 국가 기관 등 다른 권위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전락한다.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성 때문에 과감하게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인물 혹은 조직의 입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직된 초자아로서의 양심은 일종의 기능적 양심으로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검토나 비판 없이 조직의 이익에 맹목적으로 봉사하게 만든다.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침묵하게 만드는 일종의 어용 양심 또는 이데올로기화된 양심의 형태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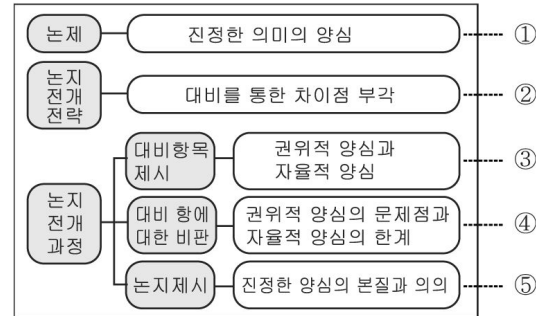
이런 형태의 양심을 지닌 사람들은 집단적 초자아이자 절대적 권위인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외부의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기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 최악도 양심에 ㉔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㉑그들은 양심에 따라,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법의 지시에 따르듯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양심은 자신의 행위나 태도에 관련된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과 인류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진정한 양심, 곧 자율적 양심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형성된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받아들인 보편적인 가치가 내면화될 때 진정한 도덕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문제 상황에 ㉔직면했을 때 참된 양심을 지닌 사람은 주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그 상황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행동한다.

요컨대 올바르게 건설적으로 길러진 양심은 한 인격체를 초자아적 양심의 단계를 넘어서게 해 준다. 이렇게 길러진 자율적인 양심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실천적 가치들을 책임감 있게, 철저히 따르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적인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의 음성이며, 삶의 과정에서 쌓은 도덕적 경험의 표현이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양심은 ‘자아의 영토를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1. 위 글을 설명하면서 <보기>와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수정해야 할 항목은?

# < 보 기 >



2.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모든 것은 나의 안에서  
물과 피로 육체를 이루어 가도  
너의 밝은 은빛은 모나고 분쇄(粉碎)되지 않아  
드디어 무형(無形)하리만큼 부드러운  
나의 꿈과 사랑과 나의 비밀을,  
살에 박힌 파편(破片)처럼 쉬지 않고 찌른다.  
모든 것은 연소되고 취(醉)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끌려 나와 호올로 눈물을 맺는 달 밤.....  
너의 차가운 금속성(金屬性)으로  
오늘의 무기를 다져가도 좋을  
그것은 가장 동지적(同志的)이고 격렬한 싸움  
- 김현승, 양심의 금속성 -

- 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화자로 설정할 거야.
- ② 본문에는 없지만, 양심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번뇌도 담아볼 거야.
- ③ ‘외적 권위에 대한 의존성’을 ‘동지적이고 격렬한 싸움’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 ④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양심의

속성을, 끊임없이 찢러대는 금속 과편으로 형상화해 볼 수 있을 거야.

- 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양심이 올바른 대응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심을 ‘오늘의 무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 ‘진정한 의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떠올려 보았다.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을 배려한 판단인가?  
②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인가?  
③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인가?  
④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인가?  
⑤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친 판단인가?

**4. ㉠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재자들의 폭정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떠돌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②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강요하였다.  
③ 도로변의 무단 주차가 늘어나자 주차 단속원들이 동원되어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일제히 단속하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④ 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제조업체 사주들은 비가 오는 시기를 택해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  
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의 가장 큰 명예는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었으며,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도 그러한 맥락에서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

**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용 :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② ㉢ 전락 : 나쁜 상태에 빠짐.  
③ ㉣ 경직 : 굳세고 강함.

④ ㉡ 부합 :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⑤ ㉢ 직면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현대소설 ‘철쭉제’**

<지난 줄거리> 나는 내 아버지를 살해한 박판돌과 함께 아버지가 묻힌 곳을 찾아간다. 도중에 나는 박판돌의 아버지인 박쇠와 나의 할아버지인 박 참봉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버지가 박쇠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라도 박 참봉의 올가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까짓 족보 없으면 못살게 뭐냐면서 한사코 참봉택에서 나가 지리산 속에서 화전이라도 일구며 살자고 남편을 졸라 왔었다고 하였다. 녀순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쇠는, “사람이 목구멍에 목을 것만 넘기고 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뭣이여. 푸나무도 다 뿌리가 있는 뱀인디 향차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근본을 못 찾으면 사나 마나여. 나는 어찌든지 참봉 어른 눈에 속 들어갔고 내 이름 석 자가 버젓하게 족보에 오르게 할 거여.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 생겨난 보람을 허는 거여.”하면서 밉지 않게 마누라를 나무라곤 하였다.

녀순이가 울면서 토해 낸 피맺힌 이야기를 듣고 난 박쇠는 여전히 벽을 향해 돌아앉은 채 두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우드득 우드득 쥐어뜯으며 소리 안 나게 끁끁대고 울부짖던 것이었다.

날이 밝자 그는 녀순이의 잘라진 손을 헌 옷에 둘둘 말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왕시루봉이 마주 보이는 술매 마을 뒤, 각씨바위 옆에 녀순이의 잘라진 손을 묻고 돌아와, 방안에 불박혀 이를 갈며 끁끁 앓았다. 밤이 되자 박쇠는 낮을 허리춤에 낀 채 박 참봉이 기거하는 사랑채 큰 마루 앞을 배돌며, 박 참봉이 나타나기만을 여우고 있었다. 그는 족보고 뭐고 죽고만 싶었다.

이튿날 아침, 앓고 누워 있는 녀순이 옆에서 땀돌질 하듯 이를 갈고 있는 박쇠를 조 서방이

데리고 나갔다. 조 서방은 박쇠를 박 참봉이 거하는 큰 사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큰사랑에는 박 참봉이 언제나처럼 밧그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를 본 박쇠의 손에 힘이 불끈 솟으면서 목구멍이 팍 메어 왔다.

조 서방이 쇠말뚝처럼 서 있는 박쇠를 박 참봉 앞에 앉도록 하였다. 박쇠가 사양질할 때 설맞은 멧돼지한테 접근하듯 목에 힘을 주고 두 눈을 부릅뜨며 참봉 앞에 앉자, 참봉이 문갑의 빼랍에서 먹글씨가 씌어 있는 부엌에서 칼질을 할 때 받치는 도마 토막만한 종이 두 장을 꺼내 박쇠 앞에 내밀었는데, 한 장은 누렇게 색깔이 바래고 희치희치 닳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옥양목처럼 깨끗한 것이었다. 박쇠는 얼추 두 장의 종이를 보고 누렇게 바랜 종이는 바로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내준 종 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나는 네 애비 종 문서고, 또 하나는 족보에 오를 너와 네 아들놈의 이름이나라.”

박 참봉은 불과하게 술기운이 오른 것처럼 밧그레한 얼굴에 알 수 없는 웃음을 슬며시 머금어 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아, 족보에 올릴 자네 부자 이름이라고 허시잖는가!”

옆에 있던 조 서방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러거리며 대신 흰 종이를 집어 쓱쓱 문쳐놓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박쇠 앞에 들이댔다.

“자네 이름이 쇠 철 자에 소리 성이니 박철성이고, 자네 아들놈이 판단할 판 자에 둘 돌이니 박판돌일세.”

조 서방의 말에 박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 부자의 이름이 씌어 있는 백지를 받아들고 눈을 껌뻍거리며 뚫어지게 들여다 보다가는,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서 닭의 똥 같은 눈물이 백지의 먹글씨 위에 똑똑 떨어지자, 그는 눈물 때문에 글씨에 어룡이 생길까봐, 때 묻은 소맷자락으로 종이에 묻은 눈물을 꺾꺾 찍어냈다.

“㉠을 가을에 맨드는 대동보에 실릴 네 부자 이름이나라. 처음엔 네놈만 올릴려다가 네 아들

놈까지 올려주기로 작정했으니 그리 알아라. 자, 종 문서하고 이름 지은 것하고 갖고 가거라. 이것으로 우리덜 지난 일들은 잊어뵈자.”

그러면서 박 참봉은 넘순이를 읍내 의원한테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하라고 돈까지 주었다.

박쇠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조 서방이 다그치는 대로 종 문서와 그들 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넘순이 치료비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허리를 굽적거리며 큰사랑에서 나왔다.

박쇠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행랑채 넘순이가 앓아 누워 있는 그들 방에 돌아와서도 방바닥에 그들 부자 이름을 적은 종지와 아버지의 종 문서를 펴놓고 가슴에 오랫동안 흘맺힌 한을 풀 듯 쿠루루루 쿠루루 한숨까지 쉬으며 온몸을 쥐어짜듯 울고 또 울었다. 그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너털너털한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서 찔레꽃 같은 얼굴로 병싯병싯 배내것을 하고 있는 아들놈을 가깝게 들여다보면서,

“이눔아, ㉠네 애미 덕분에 네놈까지 애비하고 나란히 족보에 오르게 되었어! 애비 이름은 박철성이고 네놈 이름은 박판돌이여! 박판돌 이눔아!”

하고 말하다가는 다시 얼굴을 돌리고 어깨를 심하게 출렁이며 울었다.

넘순이도 함께 울었다.

<중략 부분 줄거라> 얼마 후 다시 참봉의 아들을 따라 사냥을 간 박쇠는 돌아오지 않는다. 멧돼지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다. 넘순이는 참봉 아들이 남편을 죽였다고 울부짖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 마을에서 쫓겨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떠돌다가 염병에 걸려 죽게 된다. 죽기 전 열한 살이 된 아들에게 자신의 한 맺힌 사연을 들려주며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내라고 당부한다. 박판돌은 신분을 감춘 채 ‘나’의 집에 와서 머슴을 살게 되었다는 사연을 들려준다.

두 사람 사이에 산상(山上)의 밤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늪처럼 켜득하게 괴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박쇠 아들이라는 건 언제 밝혔소?”

나는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게 나를 찌누르고 있는 판돌이를 마치 박쇠처럼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물었다.

“어디 기회가 있어야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실 저는 도련님 댁 머슴이었는데, 두 어른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도련님 식구들과 오랜 한 술밥 묵고 살다 보니까 정도 붙고 해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납니다. 또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꺾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판돌이는 잠시 말을 멎고 머리를 무겁게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어올렸다.

“육이오가 터지고 세상이 뒤집히니까, 저 마음도 세상과 함께 뒤집혔다구요. 좌우당간에 어르신한테 한번 따져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드만요. 그래서 그 어른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지요. 어르신한테 제가 오래오래 품속에 간직해 왔던, 저 조부님 종문서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지어 주셨다는 우리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이면서, 저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꺾었느냐고 성질을 냈어요. 사실 그때 ㉔저는 어른신네께서 거짓말로라도 저 아버지를 절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맘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란디…… 그란디 말입니다. 어른신께서는 제가 그렇게 바랐던 것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에서 엽총으로 쏘 죽였다고 쉽게 고백을 하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낫으로 어른신의 아버지를 찍어 꺾일 것만 같았고…… 또 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멧돼지 사냥을 나와 세석평전까지 끌고 가서 쏘 죽였다고 허드만요. 어른신은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런 어른신이 싫었던 거지요. 차라리 그때 나한테 불호령을 치셨더라면 저 마음이 약해져서…….”

“㉕그래서 판돌 씨도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까지 끌고 와서…….”

“어르신께서 저 아버지를 꺾인 곳을 알고 있

다고 해서……. 지도 어머니 유언대로 올 아버지 뼈라도 찾을까하고…….”

“그래, 찾았나요?”

나는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골을 찾았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위디가요. 세석평전을 다 뒤져 봤지만 철 늑은 철쭉꽃만 휘너후러져서…… 허가, 족보에도 못 오른 아버지한테 무덤은 남겨서 뭘 허겠어요? 차라리 잘 됐지요며.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 그까짓 족보 있으면 어찌고 없으면 어쩍니까. 저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 석 자 올릴 욕심으로 죽을 때끼정 꺽꺽 댔지만, 저는 족보 대신 돈을 갖기루 걱정했지요. 족보가 없는 대신 돈이라도 몽땅 벌자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은 좀 모았지요. 이제는 백만 원만 주고도 제가 박씨 문중에서 문벌 좋은 집안을 탈탈 골라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까짓 족보 있으면 뭘 해요? 주민등록증 하나면 얼마든지 출세를 허는 세상인디. 저는 족보 대신에 아직도 ㉖우리 조부님 종문서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박판돌이라고 지어 주신 저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만요. 으쩌면 족보보다는 그거이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재요.”

판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판돌이 자신이었구만요 하고 물으려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을 어둡고 답답한 침묵의 깊은 늪 속에 빠진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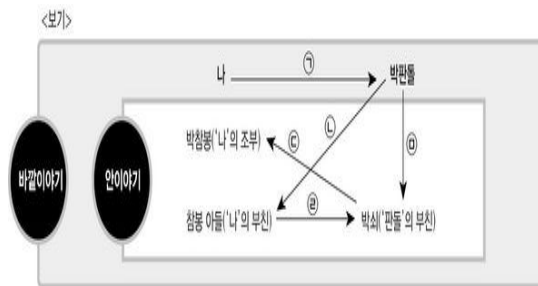
- 문순태, ‘철쭉제’

####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분 제도로 인한 착취와 대립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 ② 방언을 사용하여 작품에 사실성과 향토성을 더해주고 있다.

- ③ 시간의 층위가 다른 두 사건을 교차시켜 입체감을 주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과 사건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상황을 설정하여 상황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2. <보기>는 위 글의 구조에 따른 인물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는 오히려 가해자가 ‘나’의 가족이었음을 알고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 ② ㉡ : 박관돌은 참봉 아들을 용서하지 않을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 ③ ㉢ : 박쇠는 박참봉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 ④ ㉣ : 참봉 아들은 박쇠가 언젠가 복수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⑤ ㉣ : 박관돌은 아버지인 박쇠의 유골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위 글에 나타난 ‘박쇠’의 모습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자신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고 싶어 함
- ㉡ 낄순이가 박참봉에게 당한 이야기를 들음
- ㉢ 박참봉에게 자신과 아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음
- ㉣ 박참봉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함

- ① ㉠을 위해서 박쇠는 스스로 박참봉의 종으로 남았다.
- ② 박쇠는 ㉡ 때문에 한순간 ㉠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③ 박쇠는 ㉢의 이름보다 ㉣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 ④ ㉣를 통해 박쇠는 ㉠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 ⑤ ㉠은 ㉡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박참봉이 지난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취한 행동이다.
- ② ㉡ : 박쇠는 복수를 위해 박참봉에게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끔 했다.
- ③ ㉢ : 박관돌이 ‘나’의 부모에게 정을 붙이고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 ④ ㉣ : 박관돌이 ‘나’의 아버지를 세석평전에서 죽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말이다.
- ⑤ ㉣ : 박관돌이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비문학 : 의학

새로운 약물이 듣는가 아닌가를 분간하는 일은 일견 간단한 일처럼 보인다.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환자가 건강해지면 듣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의 효과를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물 효과의 판정은 근대 의학의 과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류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판정은 폭넓은 학식과 창의성, 세심함, 통찰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약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중 하나가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회복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질병의 치유가 약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

면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심리적 효과, 즉 플라세보 효과 때문에 병이 낫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같은 약물이라도 인간과 동물에게 작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경우도 사람에 따라 반응 방법이 다르므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약이 병만 고치고 환자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신약 평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안전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 평가의 제1단계에서는 일련의 동물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동물은 안전성이나 약효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먼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제1군에는 치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다량의 약물을 투여한다. 제2군에는 인간에 대한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투약하고, 장기간 투약의 부작용을 밝히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투약하며 관찰을 계속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험 동물을 해부하여 조직이나 장기가 약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 신약의 안전성과 약효가 증명되면 신약 연구자들은 비로소 사람들 대상으로 신약을 실험하는 제2단계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극히 소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투약량을 늘려 나간다.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투약량을 다시 줄인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토대로 ‘증상 반응 그래프’를 작성한다. 이 초기 실험의 결과, 부작용 없이 유효량을 투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험 대상을 늘려 실험을 계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효과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투약량을 바꾸면 효과 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용량 반응 그래프’를 만든다.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면 약물의 유효성

을 검토하는 제3단계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로 삼은 병의 치료에 신약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해 보는 임상 실험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일련의 임상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지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병의 치유가 플라세보 효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나 환자의 자연 치유력보다 신약의 약리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에서는 이를 판명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위약(플라세보)을 이용한다. 위약을 이용한 실험에는 병의 정도나 체격이 되도록 비슷한 조건에 있는 두 그룹의 환자군을 활용한다. 제1군(투약군)에게는 신약을, 제2군(대조군)에게는 신약처럼 보이는 무해한 위약을 투여하고 두 그룹을 완전히 동등하게 치료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후, 신약의 효과를 판정한다.

#### 1. ‘신약 평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세보 효과는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
- ②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을 실험할 때는 약의 투여량이 중요하다.
- ③ 약효가 있어도 안전성이 확실치 않으면 신약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 ④ 신약 평가에서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자연 치유력보다 플라세보 효과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2. ㉠~㉣ 중, <보기>의 ㉡, ㉢와 관련이 깊은 것끼리 바르게 연결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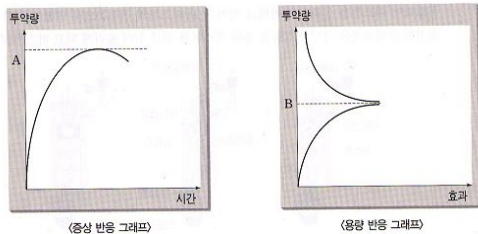
- ㉡ 진정 효과가 있는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복용한 많은 임신부에게서 기형아가 태어났다.
- ㉢ 페니실린은 인간에 대해서는 독성이 매우 낮지만 쥐(모르모트)에게는 소량이라도 치명적이다.

|   | (a) | (b)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3. 위의 실험을 ‘안전성’과 ‘약효’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나눌 때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① 질병의 치료가 약물에 의한 것인지 자연치유력에 따른 것인지를 따진다.
- ② 약이 병만 고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싶다.
- ③ 사람보다는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실시해 본다.
- ④ 증상 반응 그래프를 통해 투약량을 결정해 나간다.
- ⑤ 위약(플라세보)를 이용하기 이전에 더 먼저 부작용을 검토한다.

4. [A]에 근거할 때, <보기>의 그래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약량이 A에 이르자 신약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 ② <증상 반응 그래프>를 작성하는 실험에 참가하는 대상보다 <용량 반응 그래프>의 대상이 더 많다.
- ③ <용량 반응 그래프>를 바탕으로 신약의 적정 투여량을 결정한다.
- ④ <증상 반응 그래프>는 신약의 안전성을, <용량 반응 그래프>는 신약의 안전성과 약효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⑤ 신약 연구자들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신약의 적정 투여량을 A에서 B로 변경할 것이다.

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언젠가 겨울 그 호수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난다.
- ② 언젠가 나는 그 부부를 집에 초대할 적이 있었다.
- ③ 나는 언젠가 누구에게선가 그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 ④ 언젠가 한 번은 길에서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
- ⑤ 그녀는 항상 언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시가복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모퉁이에  
섬처럼 외롭게 남겨진  
개발제한구역  
홍제동 뒷산에는  
뽕들이 산다.

㉢ 가을날 아침이면

장끼가 우짖고  
까투리는 저마다  
평병아리를 데리고  
언덕길  
쓰레기터에 내려와  
콩나물대가리나 멸치뽕다리를  
주워먹는다.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아스팔트길을 건너  
바로 맞은 쪽 인왕산이나  
안산으로  
날아갈 수 없어  
이 삭막한 돌산에  
간혀 버린 뽕들은  
서울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시내에서 산다.

-김광규, <서울 땡>

(나) 여기 올라 ㉠ 세상사 티끌 같은 일 잠시 접노  
니

㉡ 홍망을 생각건대 한스러움만 더욱 이네  
아침저녁 빨 피리 속에 파도는 일렁이는데

㉢ 옛 사람 오늘 사람 푸른 산 그림자에 묻혀 있  
구나

서리는 고운 가지 꺾고 꽃은 주인 없어도  
따뜻한 바람 금릉 별판 불어오니 ㉣ 풀은 저절로  
봄을 이루네

사조(謝朓)\*여, 그대가 남긴 자취만 있어

㉤ 후세의 시인 그나마 삼상한 마음 새롭게 하누  
나.

-최치원, <윤주의 자화사에 올라>

\* 사조 : 윤주에 살던 유명한 중국 시인, 또는 부유했던 사씨  
일가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 잎이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홀홀 떨어지는 가을 나무의 저 멋, 이것은 아주 정  
신적인 것이다.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짓고 안타  
까워하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감성이 아닌  
가 생각된다. 깨끗하게 버릴 것을 홀홀 버리고 나  
서는 또 의연하게 버티고 서서 더욱더 넓고 깊어  
진 하늘의 무한을 성긴 가지로 받들어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당당한가.

저 잎새를 부는 소슬한 바람 소리, 칠칠한 치레  
를 깨끗이 벗어 버리고 알몸 그대로의 의지로 장  
차의 서릿발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의젓함은 참말 이름답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어  
디까지나 당당하게 그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  
큰 운명, 보다 더 위대한 섭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든, 인사(人事)에 관해  
서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철리(哲理)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겐 필요하다. 그 과정의 기복  
(起伏)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요체가 도  
리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특히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  
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이 스스로의 운명,

어떤 종국적인 결말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  
아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가을과 겨울의 진  
실, 조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이 된다. 아니 가을을 여름  
의 연장이나 변화로, 가을을 겨울이나 또 그 다음  
계절의 전제로서 아는 것은 참 가을의 뜻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가을 자체가 지닌 철리(哲  
理),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우리에  
게 던져 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일이 우리  
에겐 필요하다.

이 가을은, 이러한 인생적인 진실을 말해 주고,  
가을의 조락과 가을의 그 물들음이 가져다 주는  
정결하고 멋진 가을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저 잔디가 더 누렇게 타고, 불 뿜듯 타오르는 사  
르비아꽃이 다 떨어지고, 커다랗게 바람에 불리우  
며 아직은 청청한 플라타너스 잎이 누렇게 단풍  
들면 가을은 더 가깝게 나에게 육박할 것이다. 그  
누런 나뭇잎이 홀홀 떨어지고, 성긴 가지만이 하늘  
을 가리킬 때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  
질 것이다.

밤에 그 가지가 먼 밤하늘 찬란한 별들을 가리  
킬 때 생각하는 가을 나무, 나도 비로소 더 높이  
별들의 풍요함을 가슴에 담으리라. 그리고 이제까  
지는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져 있는 영원한 비  
밀, 그 찬란한 진리를 향해 맑디 맑은 새 눈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박두진, <가을 나무>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있다.
- ③ 인식의 전환을 통한 삶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 ④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대상의 관찰을 통하여 삶의 중요한 의식(1)을 드

1) 문제로 삼는 생각. '문제의식'이란 개념 속에는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현실과 긍정적 대상, 현  
실을 모두 포괄된다. 그야말로 화자가 문제로 삼  
는 모든 것이다.

러내고 있다.

[작품간 비교] 강추!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서술’로 이동하고 있다.
- ② (나)는 시간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우의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대조적 시어나 의미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⑥ (가)는 (나)에 비해 공간적 배경의 대비를 통하여 정서를 암시하고 있다.
- ⑦ (나)는 (가)에 비해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⑧ (가)가 대상의 묘사 중심인데 비해, (나)는 내면 심리 위주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화자의 순수한 내면이 드러나는 배경  
㉡ : 서술자의 외로움을 유발하는 배경
- ② ㉠ : 화자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부각시키는 시간적 배경  
㉡ : 서술자가 내적 성찰을 하게 되는 시간적 배경
- ③ ㉠ : 화자에게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배경  
㉡ : 서술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배경
- ④ ㉠ : 화자가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  
㉡ : 서술자가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
- ⑤ ㉠ :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  
㉡ : 서술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4.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을이 되면 쓸쓸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지는 것을 보면 웬지 내 삶도 저렇게 소멸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나 이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올 것이고 봄이 되면 이 가을의 허무한 느낌도 지워지겠지. 가을이란 봄을 예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 가을은 삶의 허무함을 더욱 일깨우고,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만나고 떠나는 일을 더욱 두려울 만들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 ① 삶은 원래 고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결국은 인생이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 ② 가을은 소멸의 계절이 아니라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 동안 나태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세요.
- ③ 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과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해요. 가을 나무가 조락(凋落)을 겸허하면서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 ④ 외로움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무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사회적 삶 속에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 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겨울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위한 예비과정인 것이지요.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세요.

**5. (가)에 나타난 세 공간의 의미를 이해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공간 I   | 공간 II  | 공간 III  |
|--------|--------|---------|
| 홍제동 뒷산 | 아스팔트 길 | 인왕산, 안산 |

- ① 공간Ⅱ를 답답하게 여기는 썩은 공간Ⅲ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② 썩에게 공간Ⅱ는 공간Ⅰ과 공간Ⅲ을 단절시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썩에게 공간Ⅰ은 희망의 공간이며 공간Ⅱ는 좌절의 공간이다.
- ④ 공간Ⅰ은 썩들의 현실적 삶의 공간이고, 공간Ⅱ는 썩들의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⑤ 공간Ⅰ이 점점 파괴되어 감에 따라 썩들은 생존을 위해 공간Ⅱ로 가고자 한다.

#### 비문학 : 예술

1964년 워홀(A. Warhol)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릴로 비누의 종이 포장 상자와 외관상 흡사하게 만든 나무 상자들을 작품으로 전시한다. 이 전시에 대해 찬사와 비난이 엇갈렸지만, 단토(A. Danto)에게는 이것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브릴로 상자들과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시각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데, 왜 후자만 예술 작품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단토 예술 비평의 출발점이 된다.

단토에 의하면 예술 작품과 물리적 대상을 구별해 주는 것은 지각적 식별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에 따르면 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일 수 있는 조건은 예술가의 특수한 심적 상태에 그 기원을 둔다. 그렇다고 어떤 예술가가 특정 물리적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람자가 그것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특수한 대상, 즉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술가가 그 대상에 어떤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예술계에서 취할 수 있는 예술 이론과 규약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관람자는 예술가가 제시한 의미를 작품을 통해 읽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작품의 제목이다. 제목은 그 작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주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거나 암시하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해석을 통해 비로소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달라지면 예술 작품도 달라진다. 새로운 해석은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 실체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는 하나의 예술 작품에 대해 그 작품 자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 물리적 실체는 각기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석은 예술가가 의존하는 예술 이론과 예술사적 지식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 해석이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토의 성찰에 따르면, 물리적 실체로서의 대상이 가지는 지각적 성질에서 미의 본질을 추구했던 예술의 역사는 워홀 이후 종언을 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회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예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본질로 삼게 되는데, 단토는 이를 ㉠'예술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예술의 역사적 변천은 예술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밝혀질 때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다른 예술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본질적인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이 필연적으로 그러해야만 하는 방식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1.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 대한 단토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예술가의 제작 의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미적 감상의 대상이다.
- ② 친숙한 대상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예술계가 공유하는 인식의 맥락 속에서 대상을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④ 이 상자들은 만들 당시에 예술가가 가졌던 특

- 수한 심적 상태를 보여 준다.
- ⑤ 물리적 대상과 예술 작품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 2. <보기>와 단토의 예술에 대한 시각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메시스(Mimesis) 이론은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를 모방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이건 사물이나 풍경의 모습이건 이상적인 원형이 따로 있으며, 그 원형을 최대한 모방하고 재현하여 감상자들에게 원형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는 예술을 진리에 부속된 것,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기는 시각이다.

- ① <보기>는 원형의 물리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표로 보았고, 단토는 원형에 담겨 있는 정신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보았다.
- ② <보기>는 예술 작품이 원형의 미를 추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단토는 예술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의미에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보기>는 모방의 대상 자체보다 그것의 표현에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단토는 모방 대상 자체의 의미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보기>는 원형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단토는 원형을 토대로 하여 작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 ⑤ <보기>는 예술 작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단토는 예술 작품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3. 단토의 입장에서 ㉠'예술의 종말' 이후 예술

의 변화를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 작품이 갖는 정체성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 ② 예술은 대상의 미적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통념이 무너진다.
- ③ 예술가의 해석이 예술 작품의 외관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 ④ 작품에 대한 해석이 예술 이론과 예술사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 ⑤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물리적 대상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이성권 출제]

## 4. 위 글을 읽고 '단토'의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3점]

- ① 단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이란 개념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물리적인 대상은 다 예술의 표지가 붙을 수 있으므로 따로 예술의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지.
- ② 단토는 예술의 본질은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 거야. 예술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예술을 열린 개념으로 볼 수 있어.
- ③ 단토는 예술이란 어떤 것이 더 진실되며 본질적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의 필연성이 있지 않기 때문이지.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단토의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예술 작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 작가가 선택한 대상은 특정한 규약 아래 새롭게 해석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야.

## 고소설 : ‘반씨전’ 동서간 갈등

[앞부분 줄거리] 양부인의 세 아들 위운·위진·위준은 각각 반옥의 딸 반 씨와, 채영의 딸 채 씨와, 맹철의 딸 맹 씨와 결혼한다. 그런데 채 씨와 맹 씨가 큰아들 위운의 부인 반 씨의 착함을 시기한다.

일일은 양부인이 ㉠채 씨와 맹 씨를 불러 왈,  
㉡“너희들이 각각 타문의 여자로 내 집에 들어와 의뢰씨 동생이 되니, 어찌 연분이 중하지 아니하라. 마땅히 형제의 도리를 온전히 하여 가도(家道)를 밝히면 한 가문의 행복이거늘, 반 씨의 없는 허물을 만들어 대의를 모르고 불의를 행하고자 하니, 이 어찌 가문의 불행이 아니리오. 차후로는 삼가고 조심하라. 너희들이 만일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본가로 보내리니, 개과한 후 오게 하리라.”

채 씨가 듣고 왈각 성을 내어 얼굴빛을 달리하고 왈,

“존고<sup>■</sup>의 말씀이 지극히 마땅하시거니와, 첩들이 진실로 모해하온 바 없습거늘, 금일 존고의 이르심을 듣자오매 반 씨가 아첨하는 말을 곧이 듣고 오직 첩들만 그르다 하시니 억울하오며, 소첩들이 본디 각 집의 자손으로 존문에 들어와 주야로 조심스럽게 가사를 섬기온즉, 혹 불미한 일이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실지라. 첩들이 본디 골육지친<sup>■</sup>이 아니니 어찌 각별하온 정이 있사오리이까. 존고께서 삼자를 두고 장성한 후 지극하온 자애 다름없을 듯하오매, 그중 입신하온 며느리는 애중하시고, 입신하지 못한 ㉢며느리는 정이 없어 박절하심이 이같이 과중하시며, 친모자지간도 여차하시거든, 하물며 남의 집 자손을 골육같이 하라 하시니 어찌 순종하오며, 애증을 두지 아니하시면 손아랫사람이 어찌 화목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존고께서 먼저 불초하온 자식들을 그르다 하오시니, 첩들이 어찌 억울치 아니하오리이까.”

양부인이 듣고 대로 왈,

“네 어찌 내 말에 대답하여 이렇듯 면박하느냐. 너희가 대의를 모르고 이같이 무례하면서도 또 자식을 애중한다 하니, 더욱 무식한 말이라. 내

어찌 자식에게 애증을 두리오. 너희가 감히 시모를 업신여겨 포박함이 이와 같고, 또 시숙에게 청원하니, 모름지기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 수행 후에 다시 돌아오라.”

말을 마치고 분함을 이기기 못하여 시비를 꾸짖어 채 씨와 맹 씨를 물리치고 두 아들을 불러 책왈,

“너희가 잘못하여 며느리가 존고를 업신여겨 말대답이 여차여차 불순하기로 가중을 소요케 하니, 노모가 저희를 불러 여차여차 책하다가 도리어 면박을 당하니 전고에 없던 바이라. 천한 집이나 여차한 행실이 있으려니와, 사대부의 집에서 어찌 이리하리오. 이는 다 너희가 잘못된 죄로 나에게 이같이 불공함이 막심하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네 부친이 돌아가신 후 비루한 인생이 뒤를 좇지 못하고 구차히 살아 있다가 이런 욕을 당하니, 모름지기 원스럽고 부끄럽도다. 금일부터는 너희가 아내를 데리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말라.”

위진이 땅에 엎드려 왈,

“소자가 불초하와 불초한 ㉣여자가 대의를 알지 못하고 어머님 앞에 이렇듯 불공하옵은 도시 소자들의 불효라. 소자들이 외당(外堂)에 있삽기로 이 같은 세세한 일을 모르옵고, 비록 부부간 금슬이 있사온들 어찌 저희를 따라가리이꼬, 각각 본가로 보내시고 불초들은 죄를 용서하심을 원하나이다. 형이 또한 조탄간 올 것이니, 그때에 소자들의 불초하온 죄를 다스리소서.”

양부인이 탄식하고 왈,

“큰아들이 있으면 가중의 범도가 어찌 이렇듯 어수선하리오. 제 이미 서울에 가 있는 지 오래되, 필경 나랏길 많아 쉬 돌아오지 못함이로다. 네 말대로 채 씨는 꽤히 본가로 돌려보내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맹 씨는 잠시 보류하여 가내에 두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라.”

위진 형제 큰소리로 왈,

“어머님의 하교가 지극히 온당하오시니 명을 받들겠나이다.”

하고 즉시 침실로 물러나오니, 채 씨가 원통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 위진이 들어옴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큰소리로 왈,

“나는 각별히 저지른 죄 없거늘 한갓 반 씨의 아침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무죄한 사람을 내치라 하시니, 첩이 존문에서 쫓겨나기는 원통치 아니하되, 첩의 죄가 선조에 미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그대는 첩을 다시 생각지 말고 어진 ㉔숙녀를 취하여 존고를 받드소서. 이제 첩은 천하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어찌 일시라도 머물리오.”

하고, 즉시 시비를 본부로 보내어,

“시가의 ㉕폐인을 데려가소서 하라”

하니, 위진은 채 씨의 언사가 순하지 아니함을 보고 딸이 무익할지라. 즉시 외당에 나와 탄식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중략>

차시에 채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는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가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하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아뢰니, 이때 위윤이 서울에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정직(淸廉正直)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상서를 시키시니, 위윤이 천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구결정성지회■가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중형 직금량 반회가 궐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윤을 보고 인사 후 이르되,

[A]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알려주되, ‘반옥이 병부상서로서 성충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천자를 속인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하여지이다.’ 라고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이까.”

- 작자 미상, ‘반씨전(潘氏傳)’

- 존고(尊姑) : ‘시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골육지친(骨肉至親) : 부자, 형제 등의 육친(肉親).
- 구결정성지회(久闕定省之懷) :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드리는 일을 오래하지 못해 생긴 마음.

##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양부인은 큰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채씨는 반씨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음모를 꾸몄다.
- ③ 위진은 채씨의 언행보다도 상황 때문에 빚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양부인은 가문의 도리가 지켜지지 못한 것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채 씨는 평소에 위진과의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 2. 다음 중에서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㉖

## 3. 다음 <보기>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할 때, [A]의 ‘채원의 상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 씨가 반발하자 양부인은 화가 나서 채 씨를 친정으로 내쫓는다. 이에 승상으로 있는 채씨의 부친은 반씨의 아빠와 남편 위윤을 모함하여 귀양보낸다. 양부인은 화병 끝에 결국 죽는다. 채 씨의 학대가 심해지자 반 씨는 피신한다. 그 후 반 씨의 아들 위흥(魏興)이 과거에 장원급제하게 되고 이에 황자의 부마가 되어 그동안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

- ① 채씨가 시댁에서 축출된 것을 가문의 치욕으로 생각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로군.
- ② 반씨의 아들이 입신양명함으로써 비로소 상소 내용이 오류임을 밝혀지게 되었군.

- ③ 가도(家道)가 바로 잡히지 않은 결과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군.
- ④ 위윤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반씨가 모함에 빠지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었군.
- ⑤ 위윤과 반옥이 위기에 빠지자 양부인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군.

#### 4. ㉠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장유유서(長幼有序)
- ② 일일삼성(一日三省)
- ③ 개과천선(改過遷善)
- ④ 금슬지락(琴瑟之樂)
- ⑤ 형제공경(兄弟恭敬)

비문학 : 과학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한 지 10여 분, 휴대전화의 열기 때문에 귀가 뜨겁다. 전자제품에서 나는 열은 대부분 핵심부품인 반도체칩에서 발생한다. 반도체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이미 100W/cm<sup>2</sup>를 넘어 섰다고 한다. 손톱만한 칩이 손바닥만한 100W 전구보다 더 뜨겁다는 얘기이다. 2010년에는 손톱만한 칩에서 1000W/cm<sup>2</sup>의 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반도체칩과 열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반도체칩은 트랜지스터가 수없이 많이 집적된 회로다. 트랜지스터는 3개의 전극(소스, 게이트, 드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한 조건하에서 게이트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를 흘려주거나 끊어줌으로써, 트랜지스터가 논리적 연산을 수행한다.

반도체칩 기술은 소자 크기를 축소해 집적도를 높이며 발전해왔다. 칩 안에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크기를 작게 하면, 전자의 이동 통로가 짧아져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연산 속도도 빨라진다. 하지만 반도체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

터 수가 늘면 늘수록 발생하는 열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이다. 열이 발생하면 트랜지스터의 저항이 커져 전류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전기신호가 지연돼 회로의 정확도가 떨어져 오작동을 일으킨다. 반도체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과학자들의 철학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열을 줄이는 설계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 다음으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트랜지스터에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 조절된다. ㉡게이트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향하던 전자들을 잡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수문장의 검문을 피해 게이트를 통과한 전자들은 트랜지스터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주범이었다. 그런데 소스와 드레인 전극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자 게이트의 검문을 받기도 전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빠져버리는 전자가 많아졌다. 그만큼 누설되는 전류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일본의 히사모토 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실리콘 통로 위아래에 게이트를 2중으로 배치하는 ‘이중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누설되는 전류를 잡는 수문장을 두 배로 늘린 셈이다. 나아가 미국의 콜린즈 교수는 게이트 전극이 전류통로 전체면을 감싸는 구조인 ‘전면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수문장이 통로 전체를 지키고 있어서, 누설 전류를 막아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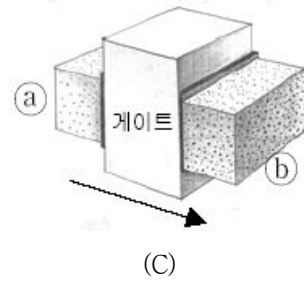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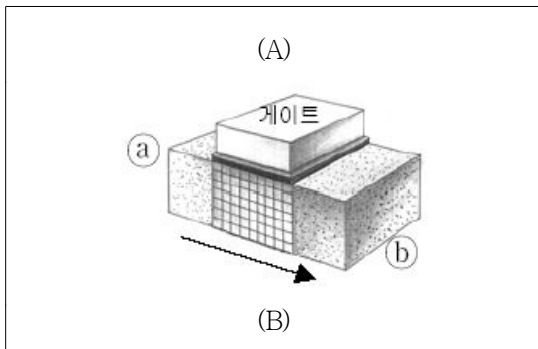
▪ 집적도 : 단위면적당 트랜지스터의 개수

1. 위 글의 서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글의 흐름             | 서술 전략                                                                     |
|-------------------|---------------------------------------------------------------------------|
| 도입                |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①                                       |
| ↓                 |                                                                           |
| 반도체칩은 무엇인가?       | ·대상의 개념과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 ②                                                |
| ↓                 |                                                                           |
| 반도체칩 기술의 핵심과 과제   | ·대상의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단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③                            |
| ↓                 |                                                                           |
| 반도체칩 설계에 일고 있는 변화 | ·비유적 수법으로 대상의 기능을 부각시킨다. ----- ④<br>·최근의 발전 방향을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⑤ |

2. <보기>는 여러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는 전류의 방향임 ① : 소스, ② : 드레인

- ① (A)는 (B), (C)에 비해 열이 많이 발생한다.
- ② (A)는 (B)에 비해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 ③ (A)→(C)→(B)의 순서로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었다.
- ④ (B)가 (A), (C)에 비해 누설 전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⑤ (A)~(C)는 ①에서 ②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연산을 수행한다.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작동을 최소화하려고
- ② 반도체칩의 집적도를 높이려고
- ③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 ④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려고
- ⑤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작게 하려고

4. ㉡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스관의 중간 밸브
- ② 공기 정화기의 필터

- ③ 천장에 있는 형광등
- ④ 창에 설치된 방충망
- ⑤ 벽에 설치된 콘센트

희곡 : 서편제

<전체 줄거리> 소리꾼 유봉은 젊은 날 전국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한 과부를 만나 정분을 나누지만, 그녀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다. 유봉은 그녀의 아이(동호)와 길에서 얻은 다른 아이(송화)를 자식으로 삼아 전국을 유랑하면서 두 아이에게 소리를 가르친다. 소리에 재주가 있던 송화는 의붓아비에게 순종하면서 소리를 배우지만, 의붓아들 동호는 떠돌이 소리꾼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두 사람 곁을 떠나간다. 아버지는 송화가 모든 것을 잊고 소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약을 먹여 송화의 눈을 멀게 한다. 늙은 소리꾼 아버가 죽고, 눈이 먼 송화는 홀로 전국을 유랑하다가 한 주막집 사내에게 몸을 의탁한다. 그 주막집에 이제 성인이 된 의붓 동생 동호와 찾아와 만난다.

#### S# 89. 염전 주막 안

(동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천가는 술상을 치우고 있다)

동 호 : 목 좀 축일 수 있겠소?

천 가 : 막걸리는 갖다 놓은 지가 며칠 돼서 좀 안 좋을 것인데, 소주가 어떻소?

동 호 : 소주도 괜찮아요. 저녁 요기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천 가 : 이 꼴이 초행길이신게라우?

동 호 : 예, 그래서 하룻밤 묵어 가고 싶소만.

천 가 : 요샌 밤을 자고 가신 손님이 통 없어 봐서, 잠자리도 험할텐디.

(내실쪽 문이 열리며 송화가 들어간다)

동 호 : 그런 걱정은 마시오. 참 이집에 소리

하는 아낙이 있다던데.

천 가 : (소리) 예 있지요.

동 호 : 소리 좀 청할 수 있겠소?

천 가 : 소문 듣고 오셨소?

동 호 : 예

천 가 : 글쎄, 요새는 여간해서 소리를 안 하  
는다. 내 잠깐 물어 봐야겠소. (방문 열  
고) 어쩔란가, 소리 좀 듣고 싶다는디...

#### S# 90 인서트

(어스름에 잠긴 염전 전경)

#### S# 91 염전 주막 방안

(천가가 문을 열어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  
가 앉는다)

(동호, 송화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천가, 문  
을 닫는다)

(송화의 B.S)

동 호 : 소리를 쫓아 남도천지 안돌아본 데  
가 없는 위인이요. 소리만 있어주면 이대  
로 앉아 밤이라도 세우겠소.

송 화 : 들을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  
리요.

동 호 : (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소.

(송화, 자세를 고쳐 앉는다)

동 호 : (북을 앞으로 잡아 끌며) 북을 잡아  
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는지 모  
르겠소.

(동호, 북을 등등 친다)

송 화 : 그때의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울라  
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에 몸이 팔려 만  
경창과를 떠날 적에

북을 두리둥두리둥 등등 두리둥 등등등등

여보시오 심낭자 물때 늦어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뱃전 안에 엎드려  
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나

< 중 략 >

**S# 94 엮전 주막 안 (아침)**

(문이 열리고 천가가 밖을 내다본다)

(송화는 뒤에 앉아있다)

**S# 95 엮전 길**

(동호,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다)

천 가 :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 화 :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복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제 아버 솜씨 그대로였어요.

**S# 96 엮전 주막 안**

천 가 :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헌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 화 :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천 가 :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게 맺혔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 화 :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천 가 : 어떻게?

송 화 : 제 소리하고 동생의 복으로요.

천 가 :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만은...

(버스 소리 들려온다)

**S# 97 엮전 길**

(동호, 버스가 서자 차에 올라탄다. 차 떠난다)

천 가 : (소리) 나도 밤새워 들었는디 자네 소리하고 저 사람 복장단이 어우러졌을 때 서로 몸을 대지 않고도 상대방을 회롱하고 어쩔 때는 서로 몸을 보듬고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

**S# 98 엮전 주막 안**

(버스 떠나는 소리 들린다)

송 화 :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지요?

천 가 : 한 삼 년 되었제.

송 화 : 제 팔자를 생각해 보면 당치도 않게 편한 세월이 너무 길었나 봐요. 이제 그만 몸을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천 가 :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했네만... 다시 홀아비로 돌아가는구만. 정해진 곳은 있는가?

(송화, 고개를 젓는다)

천 가 : (소리) 정해지거든 알려주소. 내 집을 부쳐줍세.

- 이청준, 「서편제」

**1. 윗글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은?**

- ① 시간은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나절까지로 설정한다.
- ② 주막 안과 주막 앞의 길을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 ③ 대사가 없는 장면들을 삽입하여 암시적인 분위기를 살린다.
- ④ 등장 인물이 창을 하는 장면을 넣어 애절한 느낌을 전달한다.
- ⑤ 옛날을 회상하는 장면을 넣어 인물간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2. <보기>의 설명을 따를 때, ‘한(恨)’을 드러내려고 한 장면은?**

< 보 기 >

이 영화는 인물들의 한을 드러내려고 했으나, 인물들의 대사가 이를 적절하게 드러내주지는 못한다. 인물들의 입을 통하여 아주 드물게 언급되는 시대적 배경에 관한 대사가 없었다면, ‘서편제’가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판소리가 점차 밀려난다는 세태 외에는 소리꾼 일가의 ‘한’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을 수 없다는 것도 ‘서편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 하겠다. 작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적 배경을 롱컷으로 처리하든가 유장하게 흐르는 판소리의 한 맺힌 가락을 담은 아름다운 장면을 제시한다.

- ① S# 90                      ② S# 91  
③ S# 95                      ④ S# 96  
⑤ S# 98

3. 밑글에 나타난 ‘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리를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인물이다.
- ② 송화와 동호가 남매간이라고 짐작한다.
- ③ 송화가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 ④ 송화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나 붙잡지 않는다.
- ⑤ 송화와 동호가 모른 척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4. 수행 평가에서 학생들이 'S# 89'를 <보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학생들의 견해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목 좀 축일 수 있겠소?”

그는 별 요량도 없이 아낙에게 말했다.

“약주를 드실라고요?”

아낙은 왠지 그리 달갑지 않은 어조로 그에게 되물어 왔다.

“그렇시다.”

사내는 거의 건성으로 대꾸하고 나서 마루 위로 털썩 몸을 주저앉혔다.

“갖다 놓은 지가 며칠 돼서 술이 좀 안 좋을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소?”

아낙은 마치 술을 팔기 싫은 사람처럼 한 번 더 다짐을 주고 나서야 부엌 쪽으로 몸을 비켜 나갔다.

아낙의 태도는 웬일인지 늘상 그런 식이었  
다.

잠시 후, 아낙이 초라한 목판 위에도 김치 보시기 하나와 술 주전자를 얹어 내왔을 때, 사내가 다시 아낙에게 말했다.

“어떻게 저녁 요기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있겠소?”

아낙은 이때도 주막집 여편네답지 않게 심드렁한 소리로 되물어 오는 것이었다.

“왜, 이 골이 초행길이신 게라우?”

“예, 초행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 오늘 하룻밤을 여기서 아주 묵어 갔으면 싶소 만…….”

내친 김에 사내가 다시 밤까지 묵어 갈 뜻을 말했으나, 아낙은 역시 마음이 금방 내켜 오지 않는 표정으로 사내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왜 묵고 가기가 어렵겠소?”

사내가 재차 묻고 드니까, 아낙은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반 허락을 해 왔다.

“글씨……, 요샌 밤을 묵어 가신 손님이 통  
없이 뇌서요. 상차림새도 마땅찮고 잠자리  
도 험할 것인데, 그래도 손님이 좋으시다면  
할 수 없지라우.”

-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 ① 손님이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 ② 손님을 맞는 사람이 주인 남자로 바뀌어 있다.
- ③ 손님이 주인 남자를 아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주인이 손님에게 막걸리 대신 소주를 권하고 있다.
- ⑤ 주인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들어 있다.

## 6회 적중 모의고사 정답.

### [듣기] 1-④, 2-⑤

1. [출제의도]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박 교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 기부의 다양한 방법,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추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문제이다.  
박 교수는 전문지식, 재능, 기술, 시간 등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행위 모두 기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⑤의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직업이므로,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기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쓰기]

6-①, 7-②, 8-⑤, 9-④, 10-③, 11-④, 12-②

6. [출제의도] 연상하기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는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의 문제이므로, 닫힌 곳을 여는 열쇠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자기 전에 바른다.'에서 사용 방법이, '새살이 돋는다.'에서 효능이 드러나며, '비단결 같은'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 '-예요' 등의 어미를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하기  
결론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⑥을 '수확여행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나)-1은 도시철도 이용의 불편함을, (다)-1은 연도별 도시철도 손실액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이용객의 불편 건수의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조성(造成)하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는 뜻이고, '조장(助長)하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는 뜻이다. 폭적어인 '불신율'에 호응되는 서술어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방향에 쓸 수 있는 '조장(助長)하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의도]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  
ㄹ의 '-을'은 미래 시제와 의지를 나타낼 뿐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의 '걸린'은 '걸다④', ③의 '걸렸다'는 '걸다①', ④의 '걸린'은 '걸다⑤', ⑤의 '걸리기'는 '걸다③'의 파동적 의미가 있다. 따

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시] <성탄제, 들국, 풀리는 한강가에서 >

1-⑤.⑥, 2-③, 3-④, 4-②

비문학 '언어' 통사구조 1-⑤, 2-④

비문학 : 인문사회

1-④, 2-③, 3-③, 4-⑤, 5-③

현대소설 <칠쥬제>

1-⑤, 2-②, 3-⑤, 4-②

비문학 : 의학 1-⑤, 2-④, 3-①, 4-⑤, 5-⑤

시가복합 1-⑤, 2-⑦, 3-②, 4-③, 5-②

비문학 : 과학 1-③, 2-②, 3-①, 4-①

\*\* 기술 \*\*

□ 출전 : 최양규, <태양보다 뜨거운 반도체집>

19. [출제의도] 글의 서술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반도체집 기술의 핵심과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술전략은 반도체집의 집적도를 높이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집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 따르면, 게이트의 종류를 변화시킨 이유는 트랜지스터의 열을 잡기 위한 것으로, 전자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반도체의 열은 전기 신호를 지연시켜 회로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오작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게이트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를 흘려주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스관의 중간밸브 역할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비문학 <예술> 1-①, 2-②, 3-④, 4-①

고소설 <반씨전> 1-①, 2-④, 3-④, 4-④

극 <서편제> 1-⑤, 2-②, 3-③, 4-③

## <가정소설 갈등의 종류> 정리.

### < 쌍선기> 처첩간 갈등

무릇 앵무는 능히 사람을 흉내내지만 오히려 짐승의 모양을 벗지 못하더라. 윤씨 비록 재색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 심정이 어질지 못한 여자로서 한씨 집에 도착한 후 처음은 교묘한 말과 온화한 빛으로 꾸며 자기 본심을 밝히지 않고자 노력하나 타고난 본성을 어찌 숨기리오, 일월이 흘러 장차 수년이 가까오매 정부(情夫)의 애정이 자신에게 온전히 오지 않음을 참지 못하고, 매양 묘한 계교가 없어 이씨를 모해치 못함을 한탄하더라.

하루는 이씨 부인이 몸이 피곤하여 서안(書案)을 의지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간에 한 노승이 부인 앞에 다가와 예를 갖추어 말하길,

“하늘이 그대의 아들 없음을 어여빠 여기사 귀자(貴子)를 점지하시니 잘 보호하라.”

하고 석장(錫杖)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말하길,

“태백성아, 어디 갔느냐? 적덕인문(積德仁門)에 너를 지시하노니 빠리 나와 시각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을 마치니 홍광(紅光)이 하늘에서 내려와 품 가운데 떨어지거늘 놀라 깨달으니 꿈이라. 그 신기함을 기뻐하고 있을 때, 한회가 딸 봉임 소저의 재주와 용모가 날로 빼어남을 기뻐하여 그 재주를 보고자 들어와 자리에 앉거늘, 같이 있던 이씨 부인이 꿈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그 심상치 아니함을 일컬으니 그가 또한 기뻐하며 말하길,

“하늘이 우리 무자(無子)함을 측은히 여기어 귀자를 점지하심이구려.”

하고 서로 치하하며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축수하더라.

이때 윤씨 홀로 별당에 있어 밤이 깊도록 한 상공이 오지 않자 심사가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이씨를 모해하지 못함을 한탄할 즈음에 ㉠ 춘선이 밖에서 들어와 혀를

두르고 손을 저어 윤씨를 충동이면서 말하길,

“부인, 이 일을 장차 어찌하려 하시나뇨? 아무리 이씨에게는 경사라 하나 우리에게는 불행이니 어찌 한하지 아니하리요? 제가 우연히 대청 근처에 갔더니 마침 상공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방안의 축영(燭影)이 조용하고 인적이 고요하기에 가만히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씨가 상공을 대하여 몽조(夢兆) 여차여차함을 말하니 상공이 이리이리 대답하시고 나서 취침하시기로, 혹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을까 저어하여 가만히 자취를 빼어서 돌아왔사오니, 생각건대 반드시 수태하여 귀남(貴男)을 낳을 징조요.. 본시 상공이 이씨와 정이 범연치 아니하나, 다만 사속(嗣續)을 위하여 다시 우리 부인을 맞아들였으니 만약 아들을 낳으면 우리 부인이 공구한동(空閨閑棟)에 속절없이 일생을 적막하게 지내시리니 천도(天道)의 편벽함이 이다지 고르지 못하리잇고?”

윤씨 이 말을 들으며 심사 아득하여 천 길 구렁에 떨어진 듯 어떻게 할 수 모르고 묵묵히 한숨지어 개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알 수 없구나, 필경 윤씨 무슨 계교 있는고, 하문문(下文)을 보아라.

㉡ 간비 설심중계 숙녀봉의의액(奸婢設心中計 淑女逢意外厄) 간사한 시비가 마음 속의 계교를 말하고 숙녀는 의외의 액을 만나다.)이라.

“옛적 ㉢ 척 부인은 본래 좋은 집안의 딸로 미모를 갖추어 한 태조의 은총이 일신에 사무치되 다만 심정이 너무 유약하여 일찍이 몸을 보호할 계교를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후의 독한 형벌을 면치 못하였다더라. 내가 비록 미모가 있으나 오히려 척씨에게 미치지 못하고 상공의 감식안이 또 한 태조에 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뜻이 고르지 못하여 큰 경사를 홀로 이씨에게 내리오니 슬프다. 나의 평생을 생각건대 무정하게 세월을 마치리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온순한 태도가 사라지고 사악한 형색이 자연 나타나니 이씨 모해할 생각이 어찌 시각인들 지체할 리 있으리요마는, 이 일이 십분 중대하므로 다만 좋은 계교를 얻고자 이 밤 삼경에 주인과 ㉔쥬이 서로 무릎을 대고 머리를 모아 수작을 나누니 이씨 부인 미록 식견 있다고 해도 어찌 저들의 동정을 알리오.

#### < 중 략 >

윤씨 춘심을 가까이 앉히고 귀를 기울여 말하길,

“네 무슨 계교 있느냐?”/ 춘심이 말하길,

“결단코 때를 잃지 않고 여차여차한 계교를 행하면 하나는 상공의 마음을 의심하게 함이요, 둘째는 이씨를 놀래어 복중의 태아를 위태하게 함이니, 이 계교는 한나라 사람 장량(張良)이 역사(力士)와 더불어 짐짓 시황의 수레를 맞쳐 일변 진 황제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일변 자기의 장략(將略)을 자랑하여 천하 영웅의 마음을 요동하게 함이니,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이루어도 죽하거늘 어찌 좋은 꾀가 없으리요.”

윤씨가 이 말을 들으며 모골이 송연하고 간담이 서늘하여 응답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앉았으니, 춘심이 윤씨가 차마 못하는 마음을 헤아리고는 그 마음을 부추겨서 말하길,

“옛날 한신(韓信)이 ㉕궤철(號鐵)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마침내 죽기를 당하여 그 계교를 쓰지 못함을 한탄하였나니, 이제 부인이 소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이후 뉘우칠 때가 있으리니, 그때를 당하여 소비의 말을 생각하신들 무엇이 유익하리오.”

#### ◎ 전체 줄거리

본부인 이씨 사이에 봉인이라는 딸 이외에 아들이 없던 한희가 윤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그런데 이씨가 하늘나라에 있던 이백의 환생인 아들 봉인을 낳게 된다. 그러자 윤씨가 하녀 춘섬과 짜고 이씨를 모함하여 내쫓는다.

다. 그리고 봉인을 강물에 버린다. 그 후 남방 안찰사가 되어 남쪽으로 간 한희는 그 곳에서 예전의 충직한 하인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이씨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부인으로 맞고 하녀 춘섬과 윤씨를 별한다.

한편, 강에 버려졌던 봉인은 지나가던 상인에게 구출되었으며, 장성한 봉인은 성도로 가던 길에 반군에게 잡혀 있는 촉나라 공주 주희를 구한다. 주희는 하늘나라에서 이백과 맺지 못할 사랑을 한 뒤로 옥황상제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낸 농옥이 환생한 것이다. 봉인은 다시 반군에게 사로잡혀 있던 촉나라 왕을 구출하고, 촉나라의 대원수가 된다. 촉왕은 그를 공주 주희와 혼인시켜 부마로 삼는다. 봉인과 주희는 인간세계에서 80수를 누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다시 이백과 농옥으로 되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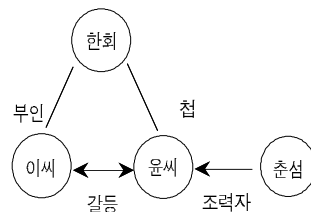
#### ◎ 지문의 내용

한희의 첩 윤씨는 본부인인 이씨가 잉태한 것을 알고 시비 춘섬과 계략을 꾸밈.

#### ◎ 핵심 정리

- 주제 -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처첩간의 갈등
- 구성 - 전반부는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이지만, 후반부는 남주인공의 전쟁을 통한 영웅담을 그린 영웅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 특징
  - ① 도교 사상이 드러남
  - ② 권선징악적 결말

#### ◎ 작품 구조도



####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입체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② 꿈을 통해 전개될 사건이 암시되고 있다.
- ③ 우연한 사건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이 서사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희는 정실 부인인 이씨에게서 꿈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
- ② 이씨는 이미 슬하에 딸이 하나 있지만, 아들을 낳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③ 윤씨는 춘섬으로부터 이씨의 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 ④ 노비인 춘섬은 윤씨를 충동하면서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설득하고 있다.
- ⑤ 윤씨는 본래 심성이 어질고 유약하여 춘섬에게 쉽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

## 3. 비유하거나 지시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 ④ ㉣                      ⑤ ㉤

## 4. 다음 보기는 <사씨남정기>의 내용이다. 보기와 관련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한림(劉翰林)은 섭덕(涉德)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였다. 금실이 좋았으나 사씨는 유씨 가문에 들어온 지 9년이 되어도 출산을 못한다. 사씨는 유한림에게 권하여

새로이 여자를 보게 하였다. 유한림은 거절했으나 여러 번 권하매 마지 못하여 교씨(喬氏)라는 처녀를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여자였다.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증오했다. 그러다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하고는 자기가 정실(正室)이 되려고 마음먹고, 문객(門客) 동청(董淸)과 모의하여 남편 유한림에게 사씨를 가지가지로 참소한다. 유한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부정한 자취를 드러내어 모략하는 데는 마음이 굳은 유한림도 미혹되어, 그 모략을 사실로 알고는 사씨를 폐출(廢黜)시키고 곧 교씨를 정실로 맞이한다.

- ① 처첩간의 갈등이 이 작품의 중심 줄거리가 될 것이다.
- ② 이씨는 윤씨의 계교에 의해 사씨처럼 오해를 받아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 ③ 윤씨는 교씨와 마찬가지로 정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씨를 모함한다.
- ④ 위 글의 춘섬은 주인을 도와 악행을 저지르는 점에서 문객, 동청과 같은 역할이다.
- ⑤ 보기와 마찬가지로 처는 어질고 현숙한 인물로, 첩은 영악하고 교활한 인물로 묘사된다.

## 5 이 글에 나타난 춘섬의 말하기 방식과 의도를 잘 파악한 것은?

- 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자신을 의심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자세하게 변명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 ④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셈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묘히 돌려서 말을 하고 있다.

<옥린몽> - 일부이처제하 양 부인의 갈등

앞부분 줄거리] 노국공 범질의 아들인 범경문은 정혼녀인 유혜란이 있음에도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교란과 혼인한다. 경문은 과거에 급제하자 유혜란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경문의 애정이 유혜란에게 쏠리자 여교란은 유혜란을 시기한다.

취섭이 이 날 여 씨의 명을 받아 유 씨의 침실에 와서 동정을 살피다가 창문을 여는 소리에 혼백이 몸에 붙지 아니하고 당황하여 돌아오니 놀란 땀이 등에 가득하더라.

여씨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㉑“남의 잘못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유치하고 졸렬함이 먼저 드러났으니 앞으로 어찌하겠는가?”

취섭이 말하기를,

“제가 빨리 피하였으므로 유 소저가 미처 보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비록 보았다고 해도 달빛이 희미하여 굳이 누구인 줄 몰라보았는가 합니다.”

여 씨가 말하기를,

“너의 말과 같다면 내가 장차 시험하여 탐지해 볼 것이다.”

인하여 한탄하며 말하기를,

㉒“황하의 맑음을 기다릴 것 같으면 사람의 목숨이 어찌 미치겠는가? 이처럼 한가롭게 일생을 지낼 것 같으면 저는 까닭 없이 부귀를 편안하게 누리고 나는 헛되이 마음을 허비하여 괴로운 웃음과 앓은 말씀으로 남의 즐거움을 위하여 헛된 이름만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다.”

<중략>

며칠 후에 여 씨가 유 씨의 침소에 이르러 좌우의 사람을 멀리 물리치고 남몰래 가만히 말하기를,

“첩이 부인으로 더불어 정이 형제에 넘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을 속이지 아니하고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님의 시녀 중 한 사람이 인품이 간사하고 교활하며 행동거지가 음흉해서 사람의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상공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밤을 지낼 때 까닭 없이 창밖에 와서 엿보다가 나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분하게 여기나 모르는 체하여 상공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제 스스로 죄를 알고 저에게 아침할 계교를 내어 허망한 말로써 부인의 허물을 꾸며 내어 말하기를, ‘부인이 저를 대하여 학사에게 원망하며 욕하는 말이 저의 몸에 미치더라.’ 하니 제가 비록 어리석고 어두우나 부인이 저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찌 소인배의 모함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까닭이 있겠습니까? 꾸짖어 물리쳤지만 도리어 생각해 보니 시비가 이미 저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했으니 반드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인을 모함하던 말이 뒤집어져 저를 참소하는 일이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부인의 넓은 도량으로써 참소하는 사람을 멀리함을 당부할 바가 아니지만 저의 구차스러운 정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부인으로 하여금 창밖을 엿보는 근심을 미리 막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씨가 감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부인의 바다 같은 덕량으로 참소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저의 아득한 어두움을 밝게 가르쳐 주시니 제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어찌 소인배의 이간하는 바가 되어 부인의 형제 같은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나 군자는 어두운 곳에서 삼가기를 밝은 곳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니 내 몸의 부끄러운 행실이 없으면 비록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엿보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끄집어낸 것은 모두 취섭의 일이 발각될까 염려하여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유 씨의 기색을 염탐하고자 하더니 유 씨의 대답은 논리 정연하여 빈틈이 없더라.

㉓그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다시 물어볼 수도 없어 다만 손으로 유 씨의 팔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㉔“부인의 말이 상대를 놀리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나 제가 무슨 부끄러운 행실이 있어 남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유 씨가 또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기를,

“저는 다만 인간의 일반적인 도리를 말하였을 뿐인데 오히려 조롱한다고 꾸짖으시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 씨가 말하기를,

[A]

“제가 이 일을 학사께 말씀드려서 다스리고자 하되 시어머니를 모신 시녀라서 잘못된 것을 꺼리는 혐의가 있기에 감히 말설하지 못하였으니 부인도 또한 마음에 혼자만 알고 입 밖에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 씨가 입으로는 승낙하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며칠 전에 취섬의 일이 가장 분한 일이지만 의심이 오히려 여 씨에게 가지 않았더니 이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여 씨가 취섬을 보내어 동렬<sup>■</sup>의 침실을 살피고 몸소 찾아와 그 기색을 살피는 것이 된다. 이것은 매우 신의나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 네가 마침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앞으로 ㉠나의 길흉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슬퍼함을 마지않더라.

- 이정작, ‘옥린몽’

■ 동렬 : 같은 수준이나 위치. 여기서는 부인이라는 같은 위치를 뜻함.

\* 일처 이부제하의 두 부인의 갈등

이성권 출제

1. 위 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리와 행위를 통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군.
- ② 여씨와 유씨는 모두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군.
- ③ 취섬이는 여씨로 하여금 유씨를 모함하도록 중용하고 있군.
- ④ 유씨는 부드러우면서도 일관된 태도로 여씨를 대하고 있군.
- ⑤ 여씨는 남편의 사랑이 유씨에게 옮겨갈까 두려워하고 있군.

2.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할 만하군.
- ② ㉡ : 원하는 일이 백년하청(百年河淸)식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군.
- ③ ㉢ :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격이로군.
- ④ ㉣ : 제가 한 일로 도리어 상대방을 거론하고 있으니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 격이로군.
- ⑤ ㉤ : 다시 장래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니 세상이 새옹지마(塞翁之馬)임을 알 수 있군.

3. 다음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A]부분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범경문은 부마 여 씨가 성혼시킨 여 부인보다 부모들이 어릴 때 정해 준 유 부인을 더 편애한다. 범경문은 북조통신사로 갔다가 정변이 일어나 갇히게 되고 그가 없는 틈을 타서 여 부인은 유 부인을 모함해 먼 곳으로 유배시키는 데 성공한다. 유 부인의 동생 유원은 과거에 급제하고 이부시랑으로 있다가 누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을 자원한다. 유원이 임지로 가다가 여 부인이 보낸 자객의 습격을 받지만 모 부인의 간호로 살아난다. 뒤에 정복대 원수가 되어 호군을 격파하고 범경문을 구하여 함께 돌아온다. 한편 여 부인의 소행이 밝혀져 유 부인은 유배지에서 귀환하고, 여 부인은 회개하여 양가가 영화를 누리며 화평하게 된다.

- ① 여씨가 이후로 유씨를 거둬 모함하는 사건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고 있군.
- ② 유씨가 여씨의 표리부동을 알게 됨으로써 여씨의 소행을 집안에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③ 유씨는 앞으로 자신이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군.
- ④ 여씨가 자신의 도덕적 부당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개과천선하기까지의 과정을 생동감있게 드러

내는군.

- ⑤ 범경문의 편애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유씨를 제거하려는 모략을 꾸미고 있으니 모순된 언행이 계속되겠군.

숙영낭자전 :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 효와 애정.

동산에 정자를 짓고 화조월석(花朝月夕)에 두 사람이 정자에 왕래하며 칠현금(七絃琴)을 희롱하고 노래로 화답하여 서로 즐기며 배회고면(徘徊顧盼)하여 청흥(淸興)이 ㉠도도하므로 그 부모가 보고

“너희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 적실하도다.”

하고 선군을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 알성과(謁聖科) 뵈다 하니 너도 올라가 과거를 보아 요행히 참방(參榜)하면 네 부모가 영화롭고 조상을 빛내는 게 되지 않으랴?”

하며 길을 재촉하니 선군이 말하기를,

[A] : “우리 전답이 수천 석이요, 노비 천여 명이라. 십 리나되는 넓은 연못과 아름다운 음악과 여색(女色)을 임의대로 할 처지거늘, 무슨 부족함이 있어 또 급제를 바랄 것인가? 만약 집을 떠나면 낭자로 더불어 여러 달 이별이 될 것이니 사정이 절박하도다.”

하고 동별당에 이르러 낭자더러 부친과 문답하던 말을 전하니, 낭자가 자세를 바로 하고 말하기를,

[B] :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세상에 나서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 뵈미 장부의 떳떳한 바이거늘 이제 낭군이 규중처자를 연연하여 남아의 당당한 일을 폐하고자 하면 부모께 불효 뵈뿐더러 타인의 꾸지람이 ㉢종시(終是) 첩에게 돌아올지니 바라건대 낭군은 재삼 생각하여 과행(科行)을 바빠 차려 남의 웃음을 취하지 마소서.”

하고 노자를 준비하여 주며 말하기를,

“낭군이 금번 과거를 못 하고 돌아오면 첩이 살지 못하리니 낭군은 조금도 ㉡꽤냐 말고 길을 떠나소서.”

하거늘, 선군이 그 말을 들음에 말마다 합당한지라. ( ㉠ ) 부모께 하직하였다.

[중략된 부분의 이야기] 과거를 보러 나선 선군이 낭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지면 집에 다시 돌아와 낭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를 반복한다.

백공이 생각하기를,

“괴이하고 괴이하도다. 내 집의 담이 높고, 상하 이목이 ㉢뵈다하여 외인(外人)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 하거늘, 어찌 수일을 두고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나니 이 반드시 흉악한 놈이 낭자와 통간함이로다.”

하고 처소로 돌아가 탄식하기를,

“낭자의 정절로 이런 일을 하니 이로 보건대 옥석(玉石)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하며 의혹이 짙어져서 어찌 처리할지 고민이 더러. 부인을 불러 이 사연을 일러 말하기를,

“그 진가(眞假)를 알지 못하였지만, 만일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장차 어찌 하리오?”

부인이 말하기를,

“상공은 잘못 들은 것일 것입니다. 현부(賢婦)의 행실은 백옥 같아서 그렇게 할 리 없으니 다시 부정한 말을 마십시오.”

하니 백공이 말하기를,

“나도 저의 일을 알기로 의아해 하고 있으니 저를 불러 물어보아 그 진상을 알아봅시다.”

하고 낭자를 불러 묻기를,

“요사이 집안이 적적해서 도적을 살피려고 집안을 두루 돌아 네 처소에 가니 방에서 남자의 음성이 은은히 들리기에 내 매우 괴이해서 돌아와 생각하니 그럴 까닭이 있으랴 했는데, 이튿날 또 가서 들으니 역시 남자 소리가 낭자(狼藉)하니 이 아니 괴이하랴? 사생 간에 이실직고하라.”

남자가 ( ㉠ ),

“밤이 오면 춘행과 동춘을 데리고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거니와 어찌 외간남자가 있어 말을 하였으리오? 이는 천만 뜻밖의 말씀입니다.”

말하거늘, 백공이 듣고 ㉡ 적인 마음이 놓이나 일이 괴이하여 매월을 즉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사이 남자 방에 가 잤느냐?”

매월이 대답하기를,

“요사이 소인의 몸이 곤하여 남자 방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백공이 매월의 대답을 듣고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기를,

“요사이 괴이한 일이 있어 놀라고 괴상히 여겨 남자에게 물으니 너와 함께 자며 수작(酬酢)하였다 하고 너는 가지 아니하였다 하여 두 말이 같지 않으니 남자가 외인과 사통한 것이 분명하도다. 너는 모름지기 착실히 살피고 그 왕래하는 놈을 잡아 고하라.”

하니 매월이 명을 받고 아무리 주야 살핀들 그림자도 없는 도적을 어찌 잡으리오. 이는 공연히 매월로 하여금 간계를 꾸미게 하는 기회가 된지라. 매월이 이에 생각하기를,

“소상공(小相公)이 남자와 작배(作配)한 후로 지금껏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이때를 타 남자를 음해하여 나의 쌓인 한을 풀리라.”

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1.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에 대한 ‘부인’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 ② ‘남자’는 왜 ‘선군’의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을까?
- ③ ‘선군’은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매월’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④ ‘백공’의 물음에 대한 ‘매월’의 대답은 왜 ‘남자’의 말과 어긋날까?

⑤ ‘남자’를 곤란한 처지로 내몬 ‘매월’의 간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 2. ‘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집안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③ 우연한 기회에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 ④ 며느리에 대한 의혹 때문에 하녀에게 화를 내고 있다.
- ⑤ 증거를 확보하여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풀려고 하고 있다.

####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상대의 처지를 걱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이다.
- ② A와 B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는 인물들의 의도가 나타난다.
- ③ A에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B에는 개인적인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 ④ A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태도가, B에는 실리를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A는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한 판단이, B는 유교적 이념을 근거로 한 판단이 중심이다.

#### 4. 문맥상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묶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 마지못하여 | 낮빛을 바꾸며  |
| ② | 속상해하며 | 떨리는 목소리로 |
| ③ | 하릴없이  | 무릎을 꿇으며  |
| ④ | 속절없이  | 읍소하며     |
| ⑤ | 기어이   | 선선히      |

5.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막힘이 없이 힘차므로
- ② ㉡ : 꿇임없이
- ③ ㉢ : 마음에 두고 신경을 씀
- ④ ㉣ : 번거롭게 많아
- ⑤ ㉤ : 꽤 어지간한 정도로

김씨열행록 : 며느리와 첩(서모)와 갈등

[앞부분의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 갑준은 김씨와 혼인하지만, 첫날밤에 괴한에게 살해당한다. 누명을 벗기 위해 김씨는 남장을 하고 집을 나와 갑준의 계모 유씨 부인이 범행을 시주했음을 밝혀낸다. 장 시랑은 유씨 부인을 죽이고 세상을 등진다. 한편, 유복자를 낳은 김씨는 혼자 힘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 그 후 숨어살던 장 시랑을 찾아 집으로 모셔와 지성으로 봉양하여 시아버지인 장 시랑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김씨는 장 시랑의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화씨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한다.

화씨가 이미 장 시랑의 사랑함을 입어 별실의 지위에 이르니, 김씨에게 서모(庶母)라. 대가(大家)의 권세를 잡지 못하므로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으나 김씨의 정성이 지극하고 행동거지가 엄숙하니 감히 누를 길이 없고, 또한 장 시랑에게 이간질도 경솔히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욱 조심하여 저의 도리를 극진히 하니, 그 마음을 아는 이 없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 ㉠ ) 하더니,

화씨가 김씨의 은혜를 입고 겸하여 어려서부터 한가지로 생장하여 정의가 친밀한지라,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을 줄이야 귀신인들 어찌 알겠느냐. 겸하여 평일에 안색이 화평하고, 언어가 공손하며, 행동이 유순하고, 정의가 더욱 친밀하게 지내니 조금도 의심할 이 없더라.

차설, 장 시랑의 후취<sup>■</sup> 유씨 부인의 동생이 있으니 이름은 득룡이라. 학업에 힘써 문식이 유명하더니, 경사에 올라가 과거하여 일찍이 청운에 득의하여 임금을 섬겨 공명에 나아가 있을 제, 그때에 유씨 부인의 상변(喪變)<sup>■</sup>을 듣고 심히 참혹하고 괴이라고 여기더라.

이때에 관동 태수를 제수하시매 가히 금상첨화라. 관부에 도임한 후에 장 시랑으로 중종 왕래하거늘, 화씨가 은근히 헤아리되, / ‘이는 천재일시(千載一時)의 기회라.’

이에 은근히 밖으로 유 태수와 은밀히 결탁하고 안으로는 장 시랑의 뜻을 받기를 더욱 힘써 ㉡ 김씨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여 먼저 태수에게 기별하기를,

“이왕 유씨 부인의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니, 그 실상은 김씨의 사특함이 많은데, 다만 장 시랑이 후덕하고 자애하기로 속음을 깨닫지 못함이라. 다른 날 이를 듣고 보면 차차 아오실 일이 있으리이다.”

이르니, 유 태수 본디 유씨 부인의 사적이 모호함을 의심하여 혹 원통함이 있는가 짐작하였더니, 이때 화씨의 말을 듣고는 더욱 의심하더라.

하루는 화씨가 장 시랑의 침실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유씨 부인의 말이 나오는지라. 화씨 참담한 기색을 띠어 은근히 탄식하다가 말하되,

“세상일이 증거라 하는 것도 없지 아니한 것이로다. 유씨 부인인들 지하에서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

장 시랑이 그 말의 뜻을 다시 물은즉, 화씨 백배 사죄하여 아뢰기를,

“경솔히 발한 말이니 과연 뜻이 없거늘, 이와 같이 다시 물으시니, 그 죄가 죽기를

청하나이다.”

장 시랑이 강박하지 못하여 묻기를 그치고  
지나간 일을 낱낱이 생각한 뒤 말하기를,

“갑준의 머리를 비록 광에서 찾았으나 내  
일찍이 유씨 부인에게는 한 말도 문초한  
것 없이 죽인 것이 너무 촉급하였도다. 경  
솔함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생각할 적에 화씨가  
잠든 줄 알고 탄식하다가 촉급하고 경솔함을  
한탄함이 부지중에 입 밖에 나가늘, 화씨가  
그제야 장 시랑이 김씨를 의심하는 마음을 짐  
작하고,

‘이제는 내 계교를 행하리라.’

이 생각으로 때때로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만들 새, 매양 제 입으로 바로 일컫지도 아니  
하며, 장 시랑에게 바로 말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시켜 장 시랑의 귀에 들어가면  
의심될 만큼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 과연 장  
시랑이 의심되는 사단이 점점 깊어 전후의 일  
을 생각해 본즉, 신혼 여자가 남복으로 나서  
서 주막에 주유한 일도 규중 부녀의 행사가  
아니요, 또한 다시 남복으로 주유팔방(周遊八  
方)<sup>■</sup>한 일도 여자로서는 못할 일이라. 생각할  
수록 두려운 마음이 일어 평일에 사랑하던 마  
음이 풀린 즉, 자연히 사색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지라.

이로부터 화씨가 틈을 얻어 날마다 간교한  
말로 참소(讒訴)하되,

“어린 신랑이 첫날밤을 다 지내지 못하였  
는데, 수태하여 남아를 낳은 것이 천하에  
희한한 일이라.”

겉으로는 좋은 말로 하나 속으로는 의심이  
되게 한즉, 장 시랑이 점점 의심이 깊어 유복  
자인 해룡도 진정 손자로 알지 않으니, 김씨  
그 사색을 짐작하고 분한 마음이 측량할 길  
없으니, 하늘과 땅에 두고 하소연하며 귀신에  
게나 증거할 일이라.

즉시 자결하여 세상을 잊고자 하다가 다시  
금 생각한즉, 경솔히 죽으면 의심이 더욱 들  
어 누명이 중할지라. 억지로 잔명(殘命)을 보

전하고 있다가, / ‘무슨 생각이 있으리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탄식으로 일을 삼아,  
하늘이 무심하심을 원망하더라.

- 후취(後娶) : 두 번째 부인을 얻음.
- 상변(喪變) : 사람이 죽은 사고
- 주유팔방(周遊八方) : 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님.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 1. 위 글에 드러난 핵심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집안의 권세를 둘러싼 김씨와 화씨의 갈등
- ② 김씨의 행적을 둘러싼 장 시랑과 화씨의 갈  
등
- ③ 계모 유씨 부인과 전실 자식인 갑준 사이의  
갈등
- ④ 며느리의 행적을 의심하는 장 시랑과 김씨의  
갈등
- ⑤ 유씨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장 시랑과 유 태  
수의 갈등

### 2.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유씨 부인은 장 시랑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  
된 인물이다.
- ② 유 태수는 불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세하려  
는 인물이다.
- ③ 장 시랑은 주관이 뚜렷해 남의 말에 쉽게 현  
혹되지 않는 인물이다.
- ④ 김씨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신분적 한계  
를 타파하려는 인물이다.
- ⑤ 화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 3.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속 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② 내 밥 먹은 개가 발뒤축을 문다.
- ③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
- ④ 가랑잎이 술있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⑤ 오랜 원수를 갚으려다가 새 원수가 생겼다.

#### 4. ㉠을 위해 화씨가 사용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유 태수로 하여금 유씨 부인의 죽음에 의혹을 품도록 부추기기
- ② 장 시랑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김씨와 가식적으로 친한 척하기
- ③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장 시랑에게 전달하기
- ④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 해룡의 비행을 들춰내어 장 시랑에게 고자질하기
- ⑤ 말실수를 가장하여 장 시랑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경솔함을 후회하도록 만들기

#### ‘가정소설의 종류’ 정답.

<쌍선기>

1-①, 2-⑤, 3-③, 4-③, 5-④

<옥란몽> 1-③, 2-⑤, 3-②

<숙영낭자전> 1-⑤, 2-①, 3-⑤, 4-⑤, 5-②

<김씨열행록> 1-①, 2-⑤, 3-②, 4-④

<수저옥란빙> 1-⑤, 2-③, 3-③, 4-①

작자 미상, 『수저옥란빙』

이 작품은 일부다처 생활에서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과 비극을 그린 가정 소설이다. 제목 ‘옥란빙(玉鸞聘)’은 결혼 폐물로 삼는 옥으로 된 닭과 비슷한 전설 속의 새인 난새를 뜻하며, 시택에서 보유했던 옥란과 석 부인이 가져온 옥란이 한 쌍을 이루으로써, 숙문과 석씨가 천생연분임을 보여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숙문이 매영을 냉대하자 매영이 석 소저를 모함하고, 송씨가 계락을 꾸며 숙문에게 석 소저를 모함하자 숙문이 석 소저를 의심하게 된다.

#### 14.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이 글에서는 ‘석 소저’, ‘매영’, ‘송씨’의 대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② 그리고 매영이 석 소저에게 하는 행위와 송씨가 석 소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또

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④도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 15. 구체적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매영이 석 소저에게 석 소저의 아버가 모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모함하자 ‘석 소저가 뜻밖에 참욕을 보매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나 안색을 바로 하고 묵연히 단좌하매 매영이 더욱 노하여 집기(什器)를 부수고 대답치 아니함을 따져 물으니, 석 소저가 대로하여 눈썹을 거스리고 옥성을 가다듬어’ 매영에게 방자히 굴지 말 것을 꾸짖고 있으므로, ③처럼 석 소저가 매영과의 충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① 숙문이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들어오다 도로 나가며 한 말인 “불상견(不相見)할 사람이 있으며 도로 나간 것이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숙문이 매영에 대해 “유씨의 근본이 유 시랑의 적녀가 아니라 하니 차마 부인으로는 대접할 수 없나이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 적녀는 정실(본처)이 낳은 딸을 의미한다.

④ 숙문이 송씨가 석씨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그대가 집안에 들어온 후 특별히 험한 일이 없더니, ~ 진실로 그러하면 내 비록 어리석으나 가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라고 한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다.

⑤ “낭군의 병세가 중하여 신부더러 진가 집안에 먼저 찾아와 성례(成禮)하라고 하시더니”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16. 특정 인물에 주목한 사건 이해

[A]에서 송씨는 석 소저에 대해 “석 소저가 존당과 낭군의 안전(眼前)에서는 효순하나 첩을 사사로이 보면 이를 갈며 왈,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 하며 욕을 보이니”라고 하며, 석 소저가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송씨가 숙문의 이중적 태도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③은 ‘석 소저의 이중적 태도를 원망함.’으로 수정되어야 적절한 내용이 된다.

#### 17. 인물의 심리 파악을 통한 구체적 적용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생의 부인은 다만 석씨니, 또 누가 있으리오?” 하던 숙문이 송씨의 계략에 빠져 석 소저를 의심하며 “~ 송 서모의 말이 여차여차하니 그 죄 어디까지이뇨? 진실로 그러하면 내 비록 어리석으나 가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라며 석 소저를 질책하고 있다. 이에 ㉠에서 석 소저는 숙문의 질책에 놀라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석 소저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변해 버린 입에 대해 서러움과 한탄을 노래하고 있는 ①이다.

② 입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③ 입에 대한 굳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 잘못을 뉘우치며 옛 정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

⑤ 어린 단종에 대한 슬픈 연정을 드러내고 있다.

|